

조선 후기 당파별 추천도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ooks Recommended
by the Major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 With a Focus on their Partisan Differences -

한 송 이 (Han, Song-Yi)*

리 상 용 (Lee, Sang-Yong)**

◁ 목 차 ▷

1. 서 론	3.2 당파별 추천도서 분석
2. 당파의 형성과 학문적 특성	4. 추천도서의 평가
2.1 당파의 형성	4.1 당파별 추천도서의 주제별 평가
2.2 당파의 학문적 특성	4.2 당파 간 추천도서의 평가
3. 당파별 주요인물의 추천도서 현황 및 분석	5. 결 론
3.1 당파별 추천도서 현황	<참고문헌>

<초 록>

이 연구는 조선후기 당파의 형성과 정치적 특성과 학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각 당파에 속한 주요 인물들의 문집에 나타난 추천도서를 분석하여 평가를 내린 것이다. 당시 유교적인 질서 하에서 당파별 추천도서는 원론적인 면에서 유교경전과 성리서의 범위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후기 당파들의 정치적 입장과 학문적 배경이 다른 만큼,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보수성향의 노론과 그렇지 않은 소론, 남인, 북인의 추천도서에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대립과 소외, 학문적, 지역적 특성들이 반영된 미세한 차이였으며, 정치적 학문적 입장이 추천도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要語: 당파,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추천도서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syhan@dongguk.edu)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1년 6월 6일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8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8일

<ABSTRACT>

This study looked into the formation of part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ir political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analyzed the books recommended by the major scholars in each party. Under the Confucian order of that time, the recommended books of each party are not far from the range of Confucian scriptures and Neo-Confucian books from theoretical aspects. However, with considerable differences in political positions and academic background between the Noron and other parties, including the Soron, the Namin, and the Bugin,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books recommended by each party. However, such difference was subtle, reflecting political confrontation and alienation, and academic and loc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fundamental, and evidenced the influence of their political and academic position.

Key words: par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Noron, Soron, Namin, Bugin, recommended books

1. 서론

개인의 사상과 인격형성에 독서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인간은 인생에서 접한 다양한 책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지혜를 얻고,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다. 따라서 한 사람이 어떠한 책을 읽었으며, 그가 읽은 책들이 어떤 계열, 어떤 성격의 책이었는가를 알아보는 일은 개인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된다.

독서가 한 사람의 사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나아가 비슷한 관심사나 가치관을 공유한 집단 간의 차이에 따라 선호하는 책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다. 즉 보수적 성향을 가진 단체에서 권장하는 서적이거나, 진보적 성향을 가진 단체에서 권장하는 서적은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치사회적 지향점이 다른 집단 간의 독서성향이나 추천도서목록에는 각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각 당파의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그들이 선호하거나 남에게 추천했던 서적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궁극적으로 이상정치 실현과 부국강병이라는 공통목적을 추구하는 당파들이 각자 정치적 방법론을 달리하며 서로 간의 비판과 견제의 정치를 행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대외적으로 明清교체로 인한 국제 질서의 변화가 있었고, 안으로는 兩亂 이후 사회경제적인 혼란 속에서 국가재건과 민생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파 간의 갈등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치열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보수집권층인 노론은 기존의 주자학적 통치 질서를 강화해 나가며 존주대의와 북벌론을 주장하는 한편, 중앙정계에서 물러난 남인, 북인, 일부 소론은 산림에 은거하며 학문 연마와 후학 양성에 주력했다. 이들 계층은 대체로 노론 중심의 기득권층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이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 더불어 노론의 체제 유지적 성향이 짙은 주자학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노장학, 양명학 등 보다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보수성향의 노론과 그렇지 않은 소론, 남인, 북인 간의 갈등은 단순한 권력투쟁의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그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당파에 속한 인물들이 관심 있게 읽었던 책이나 후학들에게 추천했던 서적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책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각 당파에서 추천한 책들이 어떤 성격을 지녔으며, 그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집단 간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선호하는 책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독서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문학계의 기정순,¹⁾ 정민,²⁾ 권진호,³⁾ 박은정,⁴⁾ 김영주⁵⁾ 등, 교육학계의 김은경,⁶⁾ 김왕규,⁷⁾ 황의동,⁸⁾ 진영호,⁹⁾ 홍운령,¹⁰⁾ 정해양¹¹⁾ 등, 서지학계의 심우준,¹²⁾ 리상용,¹³⁾ 김상호,¹⁴⁾ 김오봉¹⁵⁾ 등 각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개인의 독서론이나 그 추천도서에 관한 것이지, 당파 별 추천도서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 1) 기정순, “陶谷 李宜顯의 文章論 小考,” 『漢文學論集』 17집(1999. 1), 137-159.
- 2) 정민, “沈澹 洪吉周의 독서론과 문장론,” 『대동문화연구』 41호(2002. 12), 87-122.
- 3) 권진호, “溪村 李道顯의 讀書論과 古文論,” 『大東漢文學』 18호(2003. 6), 255-289.
- 4) 박은정, “書堂 李德壽의 讀書論과 主意論의 글쓰기,” 『東方學』 11집(2005. 12), 65-83.
- 5) 김영주, “埧叟 鄭萬陽과 篋叟 鄭葵陽의 文學觀 一考,” 『퇴계학과 한국문화』 39집(2006. 8), 235-268.
- 6) 김은경, “澤堂 李植의 讀書論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9).
- 7) 김왕규, “讀書 教育의 觀點에서 본 丁若鏞의 書簡文,” 『語文研究』 제29권 1호(2001. 3), 276-297.
- 8) 황의동, “牛溪 교육사상의 특성,” 『哲學論叢』 26호(2001. 10), 241-260.
- 9) 진영호, “朱子 讀書法 研究,”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2).
- 10) 홍운령, “栗谷 李珥의 讀書論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 11) 정해양, “炯菴 李德憲와 楚亭 朴齊家の 讀書論 比較研究,”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12) 심우준, “下學指南에 나타난 순암의 독서관,” 『한국학』 19집(1978), 18-33.
- 13) 리상용, “淵泉의 讀書論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9집(1993. 12), 195-222.
- 14) 김상호, “晚翁 徐命瑞의 讀書段階論 比較研究,” 『圖書館學論集』 22호(1995. 1), 277-297.
- 15) 김오봉, “白水 楊應秀의 讀書論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당파의 형성과 학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등 각 당파에 속한 주요 인물들을 4명씩 선정하여 총 16명의 문집에 나타난 추천도서를 추출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2. 당파의 형성과 학문적 특성

2.1 당파의 형성

조선시대 당파라고 하면 흔히 老論, 少論, 南人, 北人의 四色黨派를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중 북인은 광해군 때 잠깐 정권을 장악했다가 몰락했기 때문에 실제로 네 당파가 공존했던 기간은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사색당파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후기 당파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파의 시초인 東人과 西人의 분열은 관료의 인사권을 가진 吏曹詮郎이라는 요직을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하여 대립한데서 비롯되었다.¹⁶⁾ 東人과 西人의 대립 초기에는 東人이 정국을 주도했다. 그러나 東人은 建儲議 파동을 일으킨 西人 鄭澈의 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南人과 北人으로 갈리게 되었다.¹⁷⁾ 광해군 대 집권 당파인 北人은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중립 외교를 추진하고, 전후의 국내 상황을 정비하려고 노력했으나 당시 유교적 명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인조반정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후 광해군이 몰려남에 따라 北人 정권도 완전히 몰락해 당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西人과 南人만 남게 된다.¹⁸⁾

그러나 西人과 南人 사이에 정치적 배타성이 고착화됨에 따라 상대 세력에 대한 보복행위도 점차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西人은 南人에 대한 처벌의 강도 문제를 놓고 강경, 온건 의 입장으로 나뉘어 老論, 少論으로 분열되어 보다 격렬한

16) 최완기, 『朝鮮時代史의 理解』 (서울: 느티나무, 1992), 197-198.

17)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1』 (서울: 동방미디어, 2000), 80.

18) 이태진, 『朝鮮儒敎社會史論』 (서울: 지식산업사, 1993), 201.

政爭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南人은 廢妃閔氏의 복위운동을 반대하다 화를 입어 자력으로서는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후 경종, 영조 대를 거치면서 老論과 少論이 교차로 집권하는 양상이 이어지다 영조 말기부터 老論이 일당전제로 정국을 주도했다.¹⁹⁾

2.2 당파의 학문적 특성

여기에서는 각 당파별 학문적 특성과 정치적 입장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득권 세력이었던 노론과 이에 반해 중앙정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소론, 남인, 북인의 일반적 학문성향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2.1 노론

노론은 소론과 함께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당파이다. 숙종대에는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政爭의 축을 이루었으나, 남인이 중앙정국에서 몰락한 뒤 경종대와 영종대에 소론과 대립하면서 중앙정치를 주도하였다. 宋時烈으로 대표되는 노론 세력들은 병자호란 이후 남송대의 상황과 조선의 상황을 동일시하면서 주자학을 통해 지배질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들은 상대 당론의 인정을 통한 세력 균형을 거부하고 신권중심의 정국주도론, 양민 우선의 경세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국정운영론의 사상적 기반으로서는 그들은 주자학을 고수하였고, 여기에 절의를 강조하는 학풍이 더해지면서 이른바 주자절대화 관념이 만들어졌다.²⁰⁾

주자학은 정통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학문으로 조선 지배층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노론의 주자절대화 경향은 모든 경전의 이해를 오로지 주희를 통해서만 터득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러한

19) 이은순, “18세기 노론 일당전제의 성립과정: 신임사화와 천의소감의 논리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10집(1986. 6), 63.

20) 조성산, “17세기 말~18세기 초 洛論系 文風의 형성과 朱子學의 義理論,” 『한국사상사학』 21호(2003. 12), 370.

이유로 주희 이외의 주석은 모두 이단으로 인식되었고, 자연 배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²¹⁾ 노론의 입장에서는 정국을 장악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자학을 더욱 공고히 고수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들은 주자학의 권위를 빌어 여타 학문과 사상을 압박하였고 나아가 시대변천에 순응한 사회개혁론을 배제하였다.²²⁾

2.2.2 소론

소론은 17세기 후반 노론의 일당전제가 시작되자 남인과 함께 정치권에서 소외되어 일부는 강화도에 정착하여 양명학을 발전시키고, 후대 실학 발전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들의 학문적 경향은 대체로 예학이나 존주대의론과 같은 명분론이나 주자철학의 이론적 심화의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기본적인 주자학자로서의 소양을 갖춘 토대 위에서 실천성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학문 조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노론의 일당전제의 정치현실과 주자학의 관념론과 명분론이 대세를 이루어가는 시점에서 비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사상적으로도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다.²³⁾

소론이 주자학의 명분론에 치중하기보다 실천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들이 주로 정치권에서 소외된 인사들이었다는 상황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노론과는 다른 인물을 모체로 성립하였다는 학적 연원의 차이도 실리 중시 학문경향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노론과 소론의 학적 연원을 소급해 올라가면 노론이 宋時烈, 金集, 金長生, 李珥로 되어 栗谷 李珥의 적통임을 자부하고 있음에 대하여, 소론은 尹拯, 尹宣舉, 尹煌, 成渾으로 연결되어 牛溪 成渾의 학통을 계승하고 있다. 成渾은 李珥와는 절친하여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였고 서인계 인사들이 모두 이 두 사람의 문하에서 배웠으나 양자 사이에 방법론의 차이가 있었다. 이이가 학문적 이론에 치중했는데 비하여 성혼은 知行一致를 주장하

21) 조성산(2003), 371.

22) 이은순, “朝鮮後期 政治思想과 黨論,” 『東洋學學術會議講演』 23호(1993), 4.

23) 신병주, 『조선 중·후기 지성사 연구』 (서울: 새문사, 2007), 235.

면서 실천위주의 학풍을 보였던 것이다.²⁴⁾ 성혼 계통의 학풍은 탈주자학적인 경학풍을 보이며 절충주의적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소론 내부에서는 노론에 비해 주자학을 절대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是非明辯論의 입장이 강했던 노론세력이 철저히 자파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해 가려했던 것과는 달리, 소론은 남인세력을 수합하고 노론의 일부 세력도 포섭하려는 입장이 강하였다. 이러한 정치관에는 이들의 학문적, 사상적 입장이 그 배경이 되었다.²⁵⁾

2.2.3 남인

남인은 서인과의 정쟁에서 패배하여 인조반정 이후 권력에서 소외되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몰락해가는 양반가문에 속하였다. 또 許穆과 韓百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벼슬하지 않고 포의의 선비로 지내며 민중의 생활을 실제로 목격 체험할 수 있었다. 이들은 특권화 되어가던 노론 지배 집단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²⁶⁾

남인은 주자학적 세계관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주자학의 방법론에 대한 의심을 품고 이를 수정하고자 했다. 비록 그것이 주자학의 권위를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는 탈주자학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정도이며, 한 글자 한 구절도 주희의 설을 수정할 수 없다는 노론계 일파의 입장과는 대비되는 학문적 특성이기도 하다.²⁷⁾

남인은 주자학의 경전관과 학문방법론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의 학풍 중 눈에 띄는 특징은 원시유학인 古學 또는 古文을 중시했던 점이다. 이들이 고학을 중시한 것은 三代의 시대를 이상으로 보고 이 시대를 개혁의 모델로 생각한 것과 관련이 깊다. 이들은 당시 주류적 학풍인 주자학보다는 六經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그 본의를 해석하려 하였다. 이러한 학풍은

24) 정옥자, “17세기 사상계의 재편과 예론,” 『한국문화』 10집(1989. 1), 230.

25) 신병주(2007), 220-221.

26)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 유학의 학파들』 (서울: 예문서원, 1996), 347.

27) 한국사상사연구회(1996), 341.

자연스럽게 諸子百家의 학문이라든가 천문, 지리, 노장학 등 다양한 학문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연결되었다.²⁸⁾

2.2.4 복인

복인은 동인 중 이황 문인이 분리되어 나간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파이다. 徐敬德과 曹植의 문인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학연의 순수성이 떨어지며 그 구성원은 여러 방면에 걸쳐 있었다.²⁹⁾ 이들의 주된 활동 기간은 선조, 광해군대로 한정되며, 시인과 격렬하게 충돌하여 그 영향력을 크게 확산시키지는 못했다. 또 그 활동도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측면이 많았다.³⁰⁾

복인들은 唯氣論의 世界觀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 사유에 기초하여 정치사회 운영론을 모색하려 하였다. 여기서 唯氣論의 世界觀이란 16세기 전반기 徐敬德을 중심으로 본격 정립된 것으로, 세계의 始原과 운동의 원리를 氣의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인식체계였다. 그것은 주자학의 축을 이루는 理와 氣의 개념 중 氣의 움직임, 역할을 보다 중시하는 사고였다. 이들의 氣 중심 세계관과 인식체계는 理를 사상의 중심에 세우는 주자학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사유라 할 수 있다.³¹⁾

徐敬德의 氣 중심의 사상은 북송대 철학자 邵雍의 상수학이나 張載의 기철학, 노장사상을 소화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학문 활동은 아직 徐敬德, 曹植이 개척한 唯氣論 체계를 심화시켜 일관된 학문체계를 수립하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대체로 이들 복인은 여러 사상을 雜博하게 소화하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노장학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 양명학에 경도 되는 경우, 상수학에 깊이 빠지는 경우 등 여러 갈래의 성향이 이들에게서 나타나

28) 신병주, “17세기 중·후반 近畿南人 학자의 학풍: 허목, 윤휴, 유형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9집(1997. 6), 175-176.

29) 신병주, “17세기 전반 복인관료의 사상: 김신국, 남이공, 김세렴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집(1992. 12), 131.

30) 정호훈, “朝鮮後期 北人の學問 傳統과 政治 理念,” 『東方學志』 113호(2001. 9), 216-217.

31) 정호훈(2001), 225-226.

고 있었다. 절대적인 도덕 본체로서의 理 개념에 기초하여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제반 이념을 모색한 주자학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였던 것이다.³²⁾

3. 당파별 주요인물의 추천도서 현황 및 분석

여기에서는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의 주요 인물의 추천도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당파의 대표적 인물을 선정하여 이들의 문집을 살펴보았다. 대표 인물의 선정은 조선시대 당쟁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강주진,³³⁾ 이성무³⁴⁾ 등의 연구에서 각 당파의 領袖로 추대되거나 당파 내 대표인물로 지칭된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문장가, 학자로 평가받는 인물 16명과 그들의 문집을 선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론계 인물로 송시열의 『宋子大全』, 송준길의 『同春堂集』, 권상하의 『寒水齋集』, 김창협희의 『農巖集』 등 4종, 소론계 인물로 윤증의 『明齋遺稿』, 박세당의 『西溪集』, 오도일의 『西坡集』, 정제두의 『霞谷集』 등 4종, 남인계의 인물로 윤희의 『白湖全書』, 이현일의 『葛菴集』, 안정복의 『順菴集』, 정약용의 『與猶堂全書』 등 4종, 북인계의 인물로 이산해의 『鵝溪遺稿』, 유몽인의 『於于集』, 허균의 『惺所覆瓿藁』, 정운의 『桐溪集』 등 4종, 총 16명의 문집 16종을 선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 문집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여 추천도서에 관해 언급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추천도서의 범주는 후학, 가족, 친지 등에게 읽으라고 권했거나, 임금의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된다거나, 進講 시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상소문을 올렸거나, 타인이 훌륭하다고 평가하거나 추천했던 책에 대해 동조했거나, 책의 序文이나 跋文에서 내용이나 문장이 훌륭하다고 칭찬한 책들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각 문집에서 추출한 도서는 『四庫全書總目』³⁵⁾의 四部分類法에 의거하여 분류하였다.

32) 정호훈(2001), 227-230.

33) 강주진, 『이조당쟁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1

34) 이성무,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35) 『四庫全書總目』, 臺北: 藝文印書館, 民國68[1979].

3.1 당파별 추천도서 현황

여기서는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등 각 당파별 주요 인물들의 추천도서를 살펴 보고자 한다.

3.1.1 노론

노론의 주요인물인 尤菴 宋時烈的 『宋子大全』, 同春堂 宋浚吉의 『同春堂集』, 遂菴 權尙夏의 『寒水齋集』, 農巖 金昌協의 『農巖集』에 나타난 추천도서를 각 인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노론의 인물별 추천도서

人物	書名
尤庵 宋時烈	『周易』, 『易學啓蒙』, 『洪範皇極內篇』, 『書經』, 『詩經』, 『儀禮』, 『禮記』, 『大戴禮』, 『周禮』, 『儀禮經傳通解』, 『家禮』, 『儀禮通解續』, 『家禮輯覽』, 『喪禮備要』, 『禮記記疑』, 『疑禮問解』, 『春秋』,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孝經』, 『小學』, 『初學字訓增輯』, 『律呂新書』, 『麗史提綱』, 『南槎錄』, 『宋名臣言行錄』, 『模範錄』, 『皇輿考實』, 『魯陵志』, 『心經』, 『擊蒙要訣』, 『孔子家語』, 『近思錄』, 『程書分類』, 『朱門旨訣』, 『朱子大全』, 『朱子大全節疑』, 『朱子封事奏筭節疑』, 『朱子書節要』, 『朱子語類』, 『皇極經世書』, 『懶齋集』, 『白江集』, 『雪窟酬唱集』, 『澤堂集』, 『閒居錄』, 『海峯集』
同春堂 宋浚吉	『疑禮問解』,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大學衍義』, 『孝經』, 『小學』, 『資治通鑑』, 『心經』, 『延平答問』, 『近思錄』, 『朱文酌海』, 『朱子書節要』, 『聖學輯要』, 『浦渚集』, 『三節遺稿』, 『思問錄』
遂菴 權尙夏	『經書辨疑』, 『喪禮備要』, 『家禮輯覽』, 『疑禮問解』, 『禮記記疑』, 『家禮源流』, 『春秋』, 『論語』, 『孟子』, 『大學或問』, 『中庸或問』, 『丙子江都日記』, 『朱子大全』, 『朱子大全節疑』, 『心經』, 『近思錄』, 『近思錄釋疑』, 『聖學輯要』, 『擊蒙要訣』, 『栗谷集』
農巖 金昌協	『周易』, 『書經』, 『詩經』, 『禮記』, 『春秋』, 『春秋左氏傳』, 『論語』, 『孟子』, 『大學』, 『中庸』, 『論孟精義』, 『論語或問』, 『大學章句』, 『大學或問』, 『小學』, 『史記』, 『漢書』, 『資治通鑑綱目』, 『心經』, 『近思錄』, 『朱子遺書』, 『朱子大全』, 『朱子書節要』, 『朱門旨訣』, 『延平答問』, 『二程全書』, 『玉山講義』, 『困知記』, 『聖學輯要』, 『唐宋八大家文抄』, 『澤堂集』, 『澤齋稿』, 『息菴集』, 『村隱集』

노론계 인물 4명의 추천도서 121종 중 중복 도서를 제거한 총 수는 79종이다. 이중 42종이 중국전적이고, 37종이 한국전적이다. 여기서 ‘중국전적’은 중국인이

저술하거나 편찬한 저작을 가리키며, ‘한국전적’은 한국인이 저술하거나 편집한 저작을 가리킨다. 노론계 학자들의 추천도서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노론의 주제별 추천도서

部	類	書名	종수 (비율)
經部	易類	『周易』†, 『易學啓蒙』	30종 (37.98%)
	書類	『書經』†	
	詩類	『詩經』†	
	禮類	『儀禮』, 『禮記』†, 『大戴禮』, 『周禮』, 『儀禮經傳通解』, 『家禮』, 『儀禮通解續』, 『家禮輯覽』†, 『喪禮備要』†, 『禮記記疑』†, 『疑禮問解』†, 『家禮源流』	
	春秋類	『春秋』†, 『春秋左氏傳』	
	四書類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大學或問』†, 『中庸或問』, 『論孟精義』, 『論語或問』, 『大學章句』	
	孝經類	『孝經』†	
	小學類	『初學字訓增輯』	
史部	樂類	『律呂新書』	11종 (13.92%)
	正史類	『史記』, 『漢書』	
	編年類	『麗史提綱』, 『資治通鑑』, 『資治通鑑綱目』	
	雜史類	『南槎錄』, 『丙子江都日記』	
	傳記類	『宋名臣言行錄』, 『模範錄』	
地理類	『皇輿考實』, 『魯陵志』		
子部	儒家類	『擊蒙要訣』†, 『困知記』, 『孔子家語』, 『小學』†, 『近思錄』†, 『近思錄釋疑』, 『聖學輯要』†, 『心經』†, 『延平答問』†, 『玉山講義』, 『二程全書』, 『程書分類』, 『朱文酌海』, 『朱門旨訣』†, 『朱子大全』†, 『朱子大全節疑』†, 『朱子封事奏劄節疑』, 『朱子書節要』†, 『朱子語類』, 『朱子遺書』, 『經書辨疑』, 『大學衍義』	24종 (30.38%)
	術數類	『洪範皇極內篇』, 『皇極經世書』	
集部	總集類	『唐宋八大家文抄』, 『雪窗酬唱集』	14종 (17.72%)
	別集類	『懶齋集』, 『白江集』, 『澤堂集』†, 『閒居錄』, 『海峯集』, 『浦渚集』, 『三節遺稿』, 『思問錄』, 『栗谷集』, 『澤齋稿』, 『息菴集』, 『村隱集』	
총 79종(100%)			

† : 중복추천도서

위의 표에 나타난 서적을 각 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經部에서는 30종의 서적을 추천하였다. 易類에 『周易』, 『易學啓蒙』 등

2종, 書類에 「書經」 1종, 詩類에 「詩經」 1종, 禮類에 「儀禮」, 「禮記」, 「大戴禮」, 「周禮」, 「儀禮經傳通解」, 「家禮」, 「儀禮通解續」, 「家禮輯覽」, 「喪禮備要」, 「禮記記疑」, 「疑禮問解」, 「家禮源流」 등 12종, 春秋類에 「春秋」, 「春秋左氏傳」 등 2종, 四書類에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大學或問」, 「中庸或問」, 「論孟精義」, 「論語或問」, 「大學章句」 등 9종, 孝經類에 「孝經」 1종, 小學類에 「初學字訓增輯」 1종, 樂類에 「律呂新書」 1종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추천하고 있다. 經部에서 특이한 사항은 禮類 서적을 12종이나 추천한 점이다. 조선시대의 예학은 16세기 예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성리학파 나란히 지식인들 사이의 중심문제가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은 사상적으로 西人과 南人 사이의 예학적 전통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으며, 예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는 당파의 존립과도 연결된 중요한 문제였다. 노론계 학자들이 추천한 예학서는 모두 주자가 지었거나, 그의 저술을 바탕으로 西人, 老論계 학자들이 다시 찬술한 서적들이다. 성리학에 근거한 禮論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은 禮類 서적에 있어서도 철저히 주자 중심의 정통 성리학 계열 서적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史部에서는 11종의 서적을 추천하였다. 正史類에 「史記」, 「漢書」 등 2종, 編年類에 「麗史提綱」, 「資治通鑑」, 「資治通鑑綱目」 등 3종, 雜史類에 「南槎錄」, 「丙子江都日記」 등 2종, 傳記類에 「宋名臣言行錄」, 「模範錄」 등 2종, 地理類에 「皇輿考實」, 「魯陵志」 등 2종이다. 사부에서는 주로 중국역사서를 추천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한국 역사서인 「麗史提綱」이다. 이 책에 대해 철저한 주자 신봉자였던 송시열은 “고려사의 내력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이 책을 보면 마치 손바닥을 보듯이 환히 알 수 있을 것”³⁶⁾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 책이 「東國通鑑」, 「東國史略」에 비해 훨씬 잘된 역사서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 「麗史提綱」이 한결같이 「朱子綱目」에 의거해서 적절히 잘 기술하고, 보기에 도 편리하다³⁷⁾고 평가하고

36) 宋時烈, 「宋子大全」卷137. 麗史提綱序.

總十二卷 名曰麗史提綱 嗚呼 欲知麗氏始終者 觀於是而可以如指掌矣.

37) 宋時烈, 「宋子大全」附錄 卷8, 年譜 7. 崇禎五十三年庚申 先生七十四歲.

東國史記 通鑑則汗漫 史略則草略 故參判兪榮所纂輯麗史提綱 一依朱子綱目 詳略適 宜 甚便觀覽.

있다. 이처럼 그는 주자절대주의와 춘추의리론에 입각한 중국 중심의 역사관의 입장에서 서적을 추천하고 있다. 이 같은 학문관은 傳記類와 地理類 서적의 추천 근거에도 드러난다. 「皇輿考實」에 대해서도 “대체로 「一統志」를 주로 삼고 諸家의 저술을 참고하여 편찬하였기에 規模가 매우 넓고 條貫이 엄밀하여 대체로 史家의 羽翼이 될 만하다.”³⁸⁾고 하며 중국의 「一統志」를 참고하여 편찬한 점을 들어 내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밖에 權尙夏가 병자호란 때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을 모신 일을 기록한 「丙子江都日記」에 대해서도 당시 충성을 바친 魚漢明의 충성과 노고를 표출하고 있다.³⁹⁾

셋째, 子部에서는 24종의 서적을 추천하였다. 儒家類에 「擊蒙要訣」, 「困知記」, 「孔子家語」, 「小學」, 「近思錄」, 「近思錄釋疑」, 「聖學輯要」, 「心經」, 「延平答問」, 「玉山講義」, 「二程全書」, 「程書分類」, 「朱文酌海」, 「朱門旨訣」, 「朱子大全」, 「朱子大全筭疑」, 「朱子封事奏筭筭疑」, 「朱子書節要」, 「朱子語類」, 「朱子遺書」, 「經書辨疑」, 「大學衍義」 등 22종, 術數類에 「洪範皇極內篇」, 「皇極經世書」 등 2종의 서적을 추천하였다. 전체적으로 자부에서는 儒家類의 서적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다. 자신들의 사상적 기반인 성리학 관련 서적을 대폭 추천한 것이다.

넷째, 集部에서는 14종의 서적을 추천하였다. 總集類에 「唐宋八大家文抄」, 「雪窩酬唱集」 등 2종, 別集類에는 「懶齋集」, 「白江集」, 「澤堂集」, 「閒居錄」, 「海峯集」, 「浦渚集」, 「三節遺稿」, 「思問錄」, 「栗谷集」, 「澤齋稿」, 「息菴集」, 「村隱集」 등 12종이 있다. 別集類에 수록된 인물 12명의 黨色을 살펴보면, 남인에 속한 權好文의 「閒居錄」과 조선전기문신인 蔡壽의 「懶齋集」 외에 나머지는 모두 서인 노론 계통에 속한 인물의 문집이었다.

38) 宋時烈, 「朱子大全」卷138. 皇輿考實序.

是書 蓋以一統志爲主 而參以諸家 規模弘闊 條貫嚴密 蓋史家之羽翼也.

39) 權尙夏, 「寒水齋集」卷22. 運判魚公丙子江都日記跋.

余少從先輩聞仁廟初載 多士思皇 賢關執耳 必極一時之選 時則判官魚公以名進士 主張齋論 聲望藹蔚 余嘗嚮風而恨未及一拜 今因其孫舜瑞 得見公丙子江都日記 益不覺欽歎 苟非平日素明於義利之分者 臨難倉卒 烏能出力效忠於職事之外若是哉 是宜褒尙拔擢 以興起忠義之士 而公不自伐 世無知者 至於聖祖臨筵屢問 而莫有所對揚 終使當日之忠勞 闕味而不章 嗚呼 其亦可慨也已 余故表而出之 以示來後.

3.1.2 소론

소론의 주요 인물인 明齋 尹拯의 「明齋遺稿」, 西溪 朴世堂의 「西溪集」, 西坡 吳道一의 「西坡集」, 霞谷 鄭齊斗의 「霞谷集」에 나타난 추천도서를 각 인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표 3> 소론의 인물별 추천도서

인물	書名
明齋 尹拯	「書經」, 「詩經」, 「儀禮」, 「家禮輯覽」, 「疑禮問解續」,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大學或問」, 「資治通鑑綱目」, 「近思錄」, 「朱子書節要」, 「朱門旨訣」, 「擊蒙要訣」, 「聖學輯要」
西溪 朴世堂	「周易」, 「書經」, 「詩經」, 「禮記」, 「春秋」, 「臥游錄」, 「思辨錄」, 「老子道德經」, 「莊子」, 「稽經」, 「遲川集」
西坡 吳道一	「周易」, 「書經」, 「詩經」, 「春秋」,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小學」, 「宋史詳節」, 「史略」, 「宋名臣言行錄」, 「帝王一統志」, 「璿源系譜記略」, 「心經」, 「近思錄」, 「聖學輯要」, 「聖學十圖」, 「忠烈公遺稿」
霞谷 鄭齊斗	「書經」, 「詩經」, 「家禮」,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小學」, 「訓蒙大意」, 「通鑑節要」, 「史略」, 「祖鑑」

소론의 추천도서는 노론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기본적으로 소론은 노론과 함께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당파로 같은 문인 하에서 수학하는 등 사상적 연원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소론계 인물 4명의 추천도서 58종 중 중복되는 도서를 제거한 총 수는 38종이다. 이 중 23종이 중국전적이고, 15종이 한국전적이다. 소론계 학자들의 추천도서를 주제별로 분류하고(<표 4> 참조), 각 부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經部에서는 14종의 도서를 추천했다. 易類에 「周易」 1종, 書類에 「書經」 1종, 詩類에 「詩經」 1종, 禮類에 「儀禮」, 「家禮輯覽」, 「疑禮問解續」, 「禮記」, 「家禮」 등 5종, 春秋類에 「春秋」 1종, 四書類에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大學或問」 등 5종이다. 전체적으로 四書五經을 중심으로 추천하였는데, 노론과 마찬가지로 禮類의 서적을 많이 추천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박세당이 五經만 추천

한 사실이다. 아마도 그가 「思辨錄」을 저술하면서 朱子の 四書註解 中の 불합리한 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특히 「大學」과 「中庸」에 대하여는 원문의 잘못된 편차를 바로 고치는 작업을 해서⁴⁰⁾ 사서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소론의 주제별 추천도서

部	類	書名	종수 (비율)
經部	易類	「周易」 [†]	14종 (36.84%)
	書類	「書經」 [†]	
	詩類	「詩經」 [†]	
	禮類	「儀禮」, 「家禮輯覽」, 「疑禮問解續」, 「禮記」, 「家禮」	
	春秋類	「春秋」 [†]	
	四書類	「論語」 [†] , 「孟子」 [†] , 「大學」 [†] , 「中庸」 [†] , 「大學或問」	
史部	編年類	「資治通鑑綱目」, 「通鑑節要」	9종 (23.68%)
	別史類	「史略」 [†] , 「宋史詳節」	
	傳記類	「宋名臣言行錄」, 「祖鑑」, 「璿源系譜記略」	
	地理類	「臥游錄」, 「帝王一統志」	
子部	儒家類	「小學」 [†] , 「近思錄」 [†] , 「朱子書節要」, 「朱門旨訣」, 「擊蒙要訣」, 「聖學輯要」 [†] , 「思辨錄」, 「心經」, 「聖學十圖」, 「訓蒙大意」	13종 (34.22%)
	道家類	「老子道德經」, 「莊子」	
	農家類	「穡經」	
集部	別集類	「遲川集」, 「忠烈公遺稿」	2종 (5.26%)
총 38종(100%)			

† : 중복추천도서

둘째, 史部에서는 9종을 추천하고 있다. 編年類에 「資治通鑑綱目」, 「通鑑節要」 등 2종, 別史類에 「史略」, 「宋史詳節」 등 2종, 傳記類에 「宋名臣言行錄」, 「祖鑑」, 「璿源系譜記略」 등 3종, 地理類에 「臥游錄」, 「帝王一統志」 등 2종이다. 역사서적은 모두 중국 역사에 관한 것이고, 이밖에 전기류, 지리류의 서적들을 추천하였다.

40) 한국고전번역원, 思辨錄 解題. “한국고전종합 DB 고전번역서,” [인용일 2010. 6. 2],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

셋째, 子部에서는 13종의 서적을 추천하였다. 儒家類에 「小學」, 「近思錄」, 「朱子書節要」, 「朱門旨訣」, 「擊蒙要訣」, 「聖學輯要」, 「思辨錄」, 「心經」, 「聖學十圖」, 「訓蒙大意」 등 10종, 道家類에 「老子道德經」, 「莊子」 등 2종, 農家類에 「穡經」 1종 등이다. 역시 儒家類 서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부에서 특이한 점은 「訓蒙大意」와 「老子道德經」, 「莊子」, 「穡經」 등을 추천한 것이다. 「訓蒙大意」는 당시 양명학 분야의 아동교육서이고, 「老子道德經」, 「莊子」 등은 당시 유가적 질서에서 금기시하는 노장 관련 서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소론이 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학문 조류에 관심을 보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론은 18세기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사상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들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⁴¹⁾

넷째, 集部 別集類에 崔鳴吉의 「遲川集」과 吳達濟의 「忠烈公遺稿」 등 2종의 문집을 추천했는데 모두 서인, 소론계통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3.1.3 남인

남인의 주요인물로 白湖 尹鑄의 「白湖全書」, 葛庵 李玄逸의 「葛菴集」, 順菴 安鼎福의 「順菴集」, 茶山 丁若鏞의 「與猶堂全書」 등에 나타난 추천도서를 각 인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표 5> 남인의 인물별 추천도서

人物	書名
白湖 尹鑄	「周易」, 「書經」, 「詩經」, 「禮記」, 「春秋」, 「大學」, 「中庸」, 「孝經」, 「孝經外傳」, 「孝經外傳續篇」, 「小學」, 「史記」, 「漢書」, 「宋史」, 「資治通鑑」, 「近思錄」, 「老子道德經」, 「纂言大略」, 「孫子」, 「司馬法」, 「尉繚子」
葛庵 李玄逸	「周易」, 「書經」, 「詩經」, 「禮記」, 「喪禮備要」, 「春秋」, 「春秋左氏傳」,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大學或問」, 「大學衍義」, 「小學」, 「資治通鑑」, 「麗史纂纂」, 「歷代便考」, 「論思錄」, 「陶山言行錄」, 「礪溪隨錄」, 「通典」, 「文獻通考」, 「心經」, 「近思錄」, 「朱子書節要」, 「呂氏鄉約」, 「士範」, 「武經」

41) 김진이, “영조 전반기 소론의 정책 구현과 정치 이념: 양역변통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12.

人物	書名
順菴 安鼎福	「周易」, 「書經」, 「詩經」, 「禮記」, 「周禮」, 「儀禮」, 「家禮」, 「喪威日錄」, 「家禮附贅」, 「大戴禮」, 「春秋」, 「呂氏春秋」,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孝經」, 「小學」, 「字解」, 「史記」, 「資治通鑑綱目」, 「東史綱目」, 「東國通鑑提綱」, 「戰國策」, 「五賢傳」, 「述先錄」, 「臨官政要」, 「磻溪隨錄」, 「文獻備考」, 「盛京通志」, 「東國輿地勝覽」, 「心經」, 「朱子書節要」, 「朱子大全」, 「朱子語類」, 「朱子語類節要」, 「近思錄」, 「二程全書」, 「李子粹語」, 「內範」, 「呂氏鄉約」, 「莊子」, 「老子道德經」, 「陰符經」, 「列子」, 「參同契」, 「荀子」, 「韓非子」, 「淵鑑類函」, 「古文抄」, 「文選」, 「唐音」, 「唐詩品彙」, 「詩選」, 「八家百選」, 「西厓集」, 「昌黎集」
茶山 丁若鏞	「周易」, 「書經」, 「尙書考辯」, 「詩經」, 「禮記」, 「周禮」, 「儀禮」, 「家禮」, 「儀禮經傳通解」, 「春秋」, 「春秋左氏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孝經」, 「小學」, 「爾雅」, 「類合」, 「三國史記」, 「高麗史」, 「史記」, 「漢書」, 「國朝寶鑑」, 「資治通鑑」, 「資治通鑑綱目」, 「燃藜室記述」, 「鵝洲雜錄」, 「盤池漫錄」, 「靑野謾輯」, 「懲愆錄」, 「磻溪隨錄」, 「文獻通考」, 「通典」, 「經國大典」, 「大明律」, 「欽欽新書」, 「東國輿地勝覽」, 「老子道德經」, 「莊子」, 「離騷」, 「武備志」, 「農政全書」, 「海族圖說」, 「星湖僊說」, 「奇器圖」, 「西厓集」, 「白沙集」, 「梧里集」, 「五峰集」, 「梧陰集」, 「月汀集」, 「月沙集」, 「漢陰集」, 「谿谷集」, 「芝峰集」, 「鷺渚集」, 「李忠武公全書」, 「紫巖集」

남인계 인물 4명의 추천도서 167종 중 중복 도서를 제거한 총 수는 113종이다. 이중 62종이 중국전적이고, 51종이 한국전적이다. 남인계 학자들의 추천도서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표 6> 남인의 주제별 추천도서

部	類	書名	종수 (비율)
經部	易類	「周易」†	28종 (24.78%)
	書類	「書經」†, 「尙書考辯」	
	詩類	「詩經」†	
	禮類	「禮記」†, 「喪禮備要」, 「周禮」†, 「儀禮」†, 「家禮」†, 「喪威日錄」, 「家禮附贅」, 「大戴禮」, 「儀禮經傳通解」	
經部	春秋類	「春秋」†, 「春秋左氏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四書類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大學或問」	
	孝經類	「孝經」†, 「孝經外傳」, 「孝經外傳續篇」	
	小學類	「字解」, 「爾雅」, 「類合」	

조선 후기 당파별 추천도서에 관한 연구

部	類	書名	종수 (비율)
史部	正史類	『史記』†, 『漢書』†, 『宋史』, 『三國史記』, 『高麗史』	30종 (26.55%)
	編年類	『資治通鑑』†, 『麗史彙纂』, 『歷代便考』, 『資治通鑑綱目』†, 『東史綱目』, 『東國通鑑提綱』, 『國朝寶鑑』	
	紀事 本末類	『燃藜室記述』	
	雜史類	『鵝洲雜錄』, 『盤池漫錄』, 『靑野漫輯』, 『懲愆錄』, 『戰國策』	
	傳記類	『五賢傳』, 『述先錄』	
	地理類	『盛京通志』, 『東國輿地勝覽』†	
	政書類	『磻溪隨錄』†, 『通典』†, 『文獻備考』, 『文獻通考』†, 『經國大典』, 『大明律』, 『欽欽新書』	
	職官類	『臨官政要』	
子部	儒家類	『心經』†, 『小學』†, 『近思錄』†, 『朱子書節要』†, 『呂氏鄉約』†, 『士範』, 『朱子大全』, 『朱子語類』, 『朱子語類節要』, 『二程全書』, 『李子粹語』, 『內範』, 『大學衍義』, 『荀子』, 『陶山言行錄』, 『纂言大略』, 『論思錄』	34종 (30.08%)
	類書類	『淵鑑類函』, 『星湖僂說』	
	道家類	『老子道德經』†, 『莊子』†, 『陰符經』, 『列子』, 『參同契』	
	農家類	『農政全書』	
	兵家類	『孫子』, 『司馬法』, 『尉繚子』, 『武經』, 『武備志』	
	雜家類	『呂氏春秋』	
	法家類	『韓非子』	
譜錄類	『海族圖說』, 『奇器圖』		
集部	楚辭類	『離騷』	21종 (18.59%)
	總集類	『古文抄』, 『文選』, 『唐音』, 『唐詩品彙』, 『詩選』, 『八家百選』	
	別集類	『西厓集』†, 『昌黎集』, 『白沙集』, 『梧里集』, 『五峰集』, 『梧陰集』, 『月汀集』, 『月沙集』, 『漢陰集』, 『谿谷集』, 『芝峰集』, 『鷺渚集』, 『李忠武公全書』, 『紫巖集』	
총 113종(100%)			

† : 중복추천도서

위의 표에 나타난 서적을 각 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經部에 28종의 서적을 추천했다. 易類에 『周易』 1종, 書類에 『書經』, 『尙書考辯』 등 2종, 詩類에 『詩經』 1종, 禮類에 『禮記』, 『喪禮備要』, 『周禮』,

「儀禮」, 「家禮」, 「喪威日錄」, 「家禮附贅」, 「大戴禮」, 「儀禮經傳通解」 등 9종, 春秋類에 「春秋」, 「春秋左氏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등 4종, 四書類에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大學或問」 등 5종, 孝經類에 「孝經」, 「孝經外傳」, 「孝經外傳續篇」 등 3종, 小學類에 「字解」, 「爾雅」, 「類合」 등 3종이다. 경부에서는 당시의 필독서인 四書五經을 중심으로 추천하였으며, 다른 당파와 마찬가지로 禮類 서적의 비율이 높다. 당파와 관계없이 당시 禮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경부에서 특이한 사항은 소학류에 「字解」, 「類合」 등 우리나라의 字書を 추천한 것이다. 특히 「字解」는 조선중기 안신이 지은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의 한자말에 대한 연구서로 안정복은 이 책에 대해 유가에 도움이 된다⁴²⁾는 평을 내렸다. 정약용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데, 徐居正이 지은 「類合」에 대해 「爾雅」, 「急就篇」의 雅正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周興嗣의 「千字文」보다는 낫다면서 초학에게 천자문을 읽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비루한 관습이라고⁴³⁾ 하면서 「類合」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경부에서 주목할 사항은 남인들이 「字解」, 「類合」 등 우리나라 인물의 저작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史部에서는 30종의 서적을 추천하였다. 正史類에 「史記」, 「漢書」, 「宋史」, 「三國史記」, 「高麗史」 등 5종, 編年類에 「資治通鑑」, 「麗史集纂」, 「歷代便考」, 「資治通鑑綱目」, 「東史綱目」, 「東國通鑑提綱」, 「國朝寶鑑」 등 7종, 紀事本末類에 「燃藜室記述」 1종, 雜史類에 「鵝洲雜錄」, 「盤池漫錄」, 「青野謾輯」, 「懲愆錄」, 「戰國策」 등 5종, 傳記類에 「五賢傳」, 「述先錄」 등 2종, 地理類에 「盛京通志」, 「東國輿地勝覽」 등 2종, 政書類에 「磻溪隨錄」, 「通典」, 「文獻備考」, 「文獻通考」, 「經國大典」, 「大明律」, 「欽欽新書」 등 7종, 職官類에 「臨官政要」 1종이다. 史部에서 특징적인 점은 우리나라 서적을 19종이나 추천했다는 점이다. 이 중 역사서가 12종이나 되는데, 8종은 정약용이 추천한 서적이다. 정약용은 조선시대 유학자

42) 安鼎福, 「順菴集」 卷25. 奉正大夫守軍器寺副正五休堂安公行狀.

辨東華二音 註以方言 爲字解二卷 其著述 皆羽翼斯文 而不爲空言如是.

43)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卷17. 爲盤山丁修七贈言.

教小兒 如徐居正類合 雖不及爾雅急就篇之爲雅正 猶勝於周興嗣千字文 讀玄黃字 不能於青赤黑白等竭其類 何以長兒之知識 初學讀千文 最是吾東之陋習.

들이 중국의 역사를 우선시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역사를 중시하는 주체적 시각을 가졌다⁴⁴)고 했는데, 실제 그가 추천한 역사책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걸핏하면 중국의 일을 인용하는데, 이 또한 비루한 품격”⁴⁵)이라고 혹평한 것이다. 남인은 당시 華夷觀에 입각한 중국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할 것을 주장하는 움직임 보였다. 특히 순암은 단군조선을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에서 제외시켜 別紀로 처리한 『東國通鑑』적 역사인식을 극복하고 단군조선을 정통으로 세워 우리 역사의 맨 앞에 기록하였다.⁴⁶)

政書類, 職官類에 수록된 서적은 남인의 추천도서에만 나타나는 항목이다. 남인이 제도와 법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이들이 중앙정계에서 물러나면서 성리학의 권위화 된 이념에서 벗어나 다른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었던 사실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또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내적 수양이나 도덕 이념보다는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국가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⁴⁷) 제도나 정법관계 서적을 상당수 추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磻溪隨錄』, 『文獻備考』, 『欽欽新書』 등 우리나라 서적을 추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셋째, 子部에는 34종의 서적을 추천하였다. 儒家類에 『心經』, 『小學』, 『近思錄』, 『朱子書節要』, 『呂氏鄉約』, 『士範』, 『朱子大全』, 『朱子語類』, 『朱子語類節要』, 『二程全書』, 『李子粹語』, 『內範』, 『大學衍義』, 『荀子』, 『陶山言行錄』, 『纂言大略』, 『論思錄』 등 17종, 類書類에 『淵鑑類函』, 『星湖僊說』 등 2종, 道家類에 『老子道德經』, 『莊子』, 『陰符經』, 『列子』, 『參同契』 등 5종, 農家類에 『農政全書』 1종, 兵家類에 『孫子』, 『司馬法』, 『尉繚子』, 『武經』, 『武備志』 등 5종, 雜家類에 『呂氏春秋』 1종, 法家類에 『韓非子』 1종, 譜錄類에 『海族圖說』, 『奇器圖』 등 2종이다.

자부에서는 역시 유가류에 속한 성리서들이 가장 많다. 흔히 남인들이 성리학

44) 김영, 『朝鮮後期 漢文學의 社會的 意味』 (서울: 집문당, 1993), 257.

45) 丁若鏞, 『典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卷21. 寄游兒書.

雖然 我邦之人 動用中國之事 亦是陋品.

46) 강병수, “조선 후기 성호학파의 단군조선 인식,” 『仙道文化』 2집(2007. 2), 158.

47) 신병주(2007), 268.

을 도외시하고 다른 학문을 대안으로 찾으려 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비록 남인들이 성리학의 경직성을 비판하고 다양한 학문, 사상에 관심을 보이는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리학 틀 안에서의 비판이지 그 틀까지 깨고자 하지는 않았다. 남인이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던 배경도 성리학에 대한 깊은 학문적 성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⁴⁸⁾

자부에서 특징적인 점은 「老子道德經」, 「莊子」, 「陰符經」, 「列子」, 「參同契」 등 도가류의 서적을 다수 추천하고 있는 점이다. 노론이 朱子書 이외의 사상서는 異端으로 보고 멀리했던 태도에 비하면 비교적 사상적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남인은 당시 지배 질서인 성리학을 존중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사상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兵家類 서적은 노론, 소론의 추천도서에는 없었던 항목이다. 남인은 국방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윤희는 문과 무관을 가리지 말고, 「孝經」, 「大學」, 「孫子」, 「司馬法」 등 각종 병서와 弓術, 馬術, 車乘術 등의 기예를 익히게 하여 궁궐의 숙위 및 도성의 순찰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라고⁴⁹⁾ 건의하고 있다. 이현일 역시 「武經」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⁵⁰⁾

남인과 북인은 사상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文에 비해 武를 천시하던 당시 풍토 속에서 남인이 武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兵法書를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은, 武를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던 북인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⁵¹⁾ 당시 표면적으로는 노론에서 부국강병을 주장했지만, 노론에서 병서를 추천하지는 않고, 오히려 당시 정국에서 소외된 세력인 남인과 북인들이 부국강

48) 한형조, 『주희에서 정약용으로: 조선유학의 철학적 패러다임 연구』 (서울: 세계사, 1996), 145.

49) 尹鑄, 『白湖全書』 卷6. 應旨疏.

又不分文武 講之以孝經大學司馬孫武等書 弓馬車乘等技 以備執戟宿衛之任 巡徼京師之職 考其道藝而進退之.

50) 李玄逸, 『葛菴集』 卷4. 庚午六月 三辭史曹參判及兼帶仍陳大本急務疏.

略倣程子學制中訓誨武臣之規 授以武經通鑑及論語左傳等書 使知尊君親上之義兵謀師律之要 俟其識通古今才堪統領 然後材諸位而授之官 則其於訓章法 修軍政 以待緩急之用 不爲少補.

51) 조성산, “서평: 정호훈 저 『朝鮮後期 政治思想 研究(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 17세기 北人系 南人(북인계 남인)을 중심으로 -』(혜안, 2004),” 『한국사연구』 126호(2004. 9), 331.

병에 실질적인 관심을 쏟고 관련 도서를 추천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넷째, 集部에서는 21종의 서적을 추천하였다. 楚辭類에 「離騷」 1종, 總集類에 「古文抄」, 「文選」, 「唐音」, 「唐詩品彙」, 「詩選」, 「八家百選」 6종, 別集類에 「西厓集」, 「昌黎集」, 「白沙集」, 「梧里集」, 「五峰集」, 「梧陰集」, 「月汀集」, 「月沙集」, 「漢陰集」, 「谿谷集」, 「芝峰集」, 「鷺渚集」, 「李忠武公全書」, 「紫巖集」 등 14종이다. 총집류에서 다른 당파와 달리 남인들이 중국의 문선집을 대거 추천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남인들이 우리나라 서적에 주목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들은 글쓰기의 모범을 보이는 책으로 이들 서적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별집류에서 한유의 문집인 「昌黎集」을 제외한 우리나라 문집의 黨色을 살펴본 결과, 남인계열의 문집 외에 尹根壽의 「月汀集」, 尹斗壽의 「梧陰集」, 李廷龜의 「月沙集」, 李恒福의 「白沙集」, 張維의 「谿谷集」 등 서인계열의 문집을 5종이나 추천하였다. 노론이나 소론의 인물들이 대개 자신들이 속한 당파와 이해를 같이 하는 인물의 문집을 추천한 것과는 대비되는 일이다.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남인이 상대적으로 당파를 초월하여 문헌을 선정하는데 있어 좀 더 포괄적이고, 객관성 내지 공정성을 기하려고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3.1.4 복인

복인의 주요인물인 鵝溪 李山海의 「鵝溪遺稿」, 於于堂 柳夢寅의 「於于集」, 蛟山 許筠의 「惺所覆瓿藁」, 桐溪 鄭蘊의 「桐溪集」에 나타난 추천도서를 각 인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표 7> 복인의 인물별 추천도서

人物	書名
鵝溪 李山海	「小學」, 「旌忠錄」, 「紀效新書」, 「梅月堂集」
於于堂 柳夢寅	「周易」, 「書經」, 「詩經」, 「禮記」, 「春秋」, 「春秋左氏傳」, 「史記」, 「漢書」, 「國語」, 「戰國策」
蛟山 許筠	「論語」, 「孟子」, 「小學」, 「資治通鑑」, 「東國通鑑」, 「歸田錄」, 「山海經」, 「老子道德經」, 「孫子」, 「韓非子」, 「四友叢說」, 「搜神記」, 「唐絕選刪」
桐溪 鄭蘊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小學」, 「史記」, 「心經」, 「近思錄」, 「性理大全」

북인계 인물 4명의 추천도서 36종 중 중복되는 도서를 제거한 총 수는 31종이다. 이 중 27종이 중국전적이고, 4종이 한국전적이다. 북인계 학자들의 추천도서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표 8> 북인의 주제별 추천도서

部	類	書名	종수 (비율)
經部	易類	「周易」	10종 (32.26%)
	書類	「書經」	
	詩類	「詩經」	
	禮類	「禮記」	
	春秋類	「春秋」, 「春秋左氏傳」	
	四書類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史部	正史類	「史記」†, 「漢書」	7종 (22.58%)
	編年類	「資治通鑑」, 「東國通鑑」	
	雜史類	「國語」, 「戰國策」	
	傳記類	「旌忠錄」	
子部	儒家類	「心經」, 「小學」†, 「近思錄」, 「性理大全」	12종 (38.71%)
	類書類	「四友叢說」	
	道家類	「老子道德經」	
	兵家類	「紀效新書」, 「孫子」	
	法家類	「韓非子」	
	小說家類	「山海經」, 「搜神記」, 「歸田錄」	
集部	總集類	「唐絕選刪」	2종 (6.45%)
	別集類	「梅月堂集」	
총 31종(100%)			

† : 중복추천도서

북인의 추천도서의 종수는 四色黨派 중 가장 적은 31종이지만, 그 類目 수는 18개로 다양한 주제 분야로 분포되어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대체로 북인이 일관된 학문 체계를 수립하기보다는 여러 사상을 압박하게 소화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老莊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 陽明學에 경도되는 경우, 象數學에 깊이 빠지는 경우 등 여러 갈래의 성향을 보이는데⁵²⁾ 북인의 추천도서에서도 이 같은

52) 정호훈(2001), 230.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복인은 다른 당파에 비해 학파로서의 결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데 그 이유는 그 주축 인물들이 당시에 다른 학자들에 비해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학풍과 기질의 소유자였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⁵³⁾ 이러한 개방적 학문 경향은 그의 추천도서에도 영향을 주어 유교경전, 성리학 서적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추천하게 된 것이다.

위의 표에 나타난 복인의 추천도서를 각 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經部에 10종의 서적을 추천했다. 여기에는 당시의 필독서인 四書五經이 해당된다.

둘째, 史部에 7종의 서적을 추천했다. 正史類에 「史記」, 「漢書」 등 2종, 編年類에 「資治通鑑」, 「東國通鑑」 등 2종, 雜史類에 「國語」, 「戰國策」 등 2종, 傳記類에 「精忠錄」 1종이다. 傳記類의 「精忠錄」⁵⁴⁾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편찬한 것으로 변란 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子部에 12종의 서적을 추천했다. 儒家類에 「心經」, 「小學」, 「近思錄」, 「性理大全」 등 4종, 類書類에 「四友叢說」 1종, 道家類에 「老子道德經」 1종, 兵家類에 「紀效新書」, 「孫子」 등 2종, 法家類에 「韓非子」 1종, 小說家類에 「山海經」, 「搜神記」, 「歸田錄」 등 3종이다. 이 자부에서 특이한 사항은 小說家類에 속한 「山海經」, 「搜神記」, 「歸田錄」⁵⁵⁾ 등의 서적을 추천한 것이다. 특히 四色黨派 중 유일하게 小說家類 서적을 추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허균이 추천했는데, 그는 「山海經」과 「搜神記」에 대해 “게으름을 고치는 데 이보다 나은 책이 없다.”⁵⁶⁾고 한 것이다. 이 말은 명나라 陳繼儒의 「巖棲幽事」의 내용을 인용

53) 신병주(2007), 144-145.

54) 李山海, 「鵝溪遺稿」卷6. 精忠錄序.

我殿下之命印是錄也 雖在閭巷小子 無不拭目而聳視 對儀容則精爽凜凜 讀傳紀則終始了了 見兜鍪臨陣之狀 而思勇武之蓋世 詠誓心唾手之句 而思忠憤之激切 開卷三復 髣髴如置身於武穆之側 吾東人之鼓舞奮興者 將無讓於中朝 行見忠臣孝子滿一國之中 而姦佞之輩不得接迹於朝端 胡虜醜種不得窺覘於邊圉 元氣之壯 國勢之固 有不足言矣.

55) 許筠, 「惺所覆韻藁」卷5. 文部二. 歸田錄序.

此書非苟作也 亦非欲獨善公身也 其意蓋欲使世之逐逐於仕進者 觀此而有所警悟 不以利祿累其身心 皆有易退之志 其用詎不嫩歟 不佞亦仕途中一人 雲山之念 長結於中 行且謝事東歸 終老於鑑湖之上 此書亦爲不佞之津筏也 願借錄以自隨 爲他日林下之觀.

한 것이지만, 당시 정통 유학자들이 다소 꺼리는 서적에 대해 언급한 점은 특이한 사항이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인 洪奭周는 이 『山海經』에 대해 비록 지리를 서술했지만 실제로는 오로지 괴이하고 신령스러운 일만 언급하였으니 聖人이 말하지 않고 피하는 것들이라고 경계한 것⁵⁷⁾에 비하면 다소 자유로운 발상이다. 허균은 당시 이단시 하던 불교 도교에 심취하고 중국에 가서 천주교의 기도문까지 가지고 올 정도로 그는 당시 아주 자유로운 사상을 지녔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는 先秦 文章의 정수라 할 수 있는 『老子』, 『莊子』, 『韓非子』 등의 서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⁵⁸⁾

넷째, 集部에 2종의 서적을 추천했다. 總集類에 『唐絕選刪』, 別集類에 『梅月堂集』이다. 別集類 『梅月堂集』의 저자 金時習은 복인에게 학문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라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3.2 당파별 추천도서 분석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당파별 추천도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당파별 추천도서를 주제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당파별 추천도서 목록을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56) 許筠, 『惺所覆瓿藁』 閑情錄 卷12. 靜業.

讀山海經 今人嶽崎 讀搜神記 今人怪誕 然療癩無如此書.

57) 리상용, 『역주 홍씨독서록』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166.

58) 許筠, 『惺所覆瓿藁』 卷13. 文部十 讀韓非子.

先秦諸子之文 除老莊外 或厖雜或晦澁或決裂 獨韓非之文 典麗明核 善於連類比事 且切於事情 以文事論之 則誠大家也.

<표 9> 각 당파별 추천도서 목록

部	類	老論	少論	南人	北人
經部	易類	「周易」 「易學啓蒙」	「周易」	「周易」	「周易」
	書類	「書經」	「書經」	「書經」 「尙書考辯」	「書經」
	詩類	「詩經」	「詩經」	「詩經」	「詩經」
	禮類	「儀禮」 「禮記」 「大戴禮」 「周禮」 「儀禮經傳通解」 「家禮」 「儀禮通解續」 「家禮輯覽」 「喪禮備要」 「禮記記疑」 「疑禮問解」 「家禮源流」	「儀禮」 「家禮輯覽」 「疑禮問解續」 「禮記」 「家禮」	「禮記」 「喪禮備要」 「周禮」 「儀禮」 「家禮」 「喪威日錄」 「家禮附贅」 「大戴禮」 「儀禮經傳通解」	「禮記」
	春秋類	「春秋」 「春秋左氏傳」	「春秋」	「春秋」 「春秋左氏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春秋」 「春秋左氏傳」
	四書類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大學或問」 「中庸或問」 「論孟精義」 「論語或問」 「大學章句」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大學或問」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大學或問」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孝經類	「孝經」	-	「孝經」 「孝經外傳」 「孝經外傳續篇」	-
	小學類	「初學字訓增輯」	-	「字解」 「爾雅」 「類合」	-
	樂類	「律呂新書」	-	-	-
	소계	30종(37.98%)	14종(36.84%)	28종(24.78%)	10종(32.26%)

部	類	老論	少論	南人	北人
史部	正史類	「史記」 「漢書」	-	「史記」 「三國史記」 「漢書」 「高麗史」 「宋史」	「史記」 「漢書」
	編年類	「麗史提綱」 「資治通鑑」 「資治通鑑綱目」	「資治通鑑綱目」 「通鑑節要」	「資治通鑑」 「麗史彙纂」 「歷代便考」 「資治通鑑綱目」 「東史綱目」 「東國通鑑提綱」 「國朝寶鑑」	「資治通鑑」 「東國通鑑」
	紀事 本末類	-	-	「燃藜室記述」	-
	雜史類	「南槎錄」 「丙子江都日記」	-	「戰國策」 「鵝洲雜錄」 「盤池漫錄」 「青野謾輯」 「懲毖錄」	「國語」 「戰國策」
	別史類	-	「史略」 「宋史詳節」	-	-
	傳記類	「宋名臣言行錄」 「模範錄」	「宋名臣言行錄」 「祖鑑」 「濔源系譜記略」	「五賢傳」 「述先錄」	「旌忠錄」
	地理類	「皇輿考實」 「魯陵志」	「臥游錄」 「帝王一統志」	「盛京通志」 「東國輿地勝覽」	-
	政書類	-	-	「磻溪隨錄」 「通典」 「文獻通考」 「文獻備考」 「經國大典」 「大明律」 「欽欽新書」	-
	職官類	-	-	「臨官政要」	-
	소개	11종(13,92%)	9종(23,68%)	30종(26,55%)	7종(22,58%)

조선 후기 당파별 추천도서에 관한 연구

部	類	老論	少論	南人	北人
子部	儒家類	「心經」, 「擊蒙要訣」 「孔子家語」, 「小學」 「近思錄」 「程書分類」 「朱門旨訣」 「朱子大全」 「朱子大全節疑」 「朱子封事奏劄節疑」 「朱子書節要」 「朱子語類」 「延平答問」 「朱文酌海」 「聖學輯要」 「大學衍義」 「近思錄釋疑」 「經書辨疑」 「朱子遺書」 「二程全書」 「玉山講義」 「困知記」	「近思錄」 「小學」 「朱子書節要」 「朱門旨訣」 「擊蒙要訣」 「聖學輯要」 「思辨錄」 「心經」 「聖學十圖」 「訓蒙大意」	「近思錄」 「小學」 「纂言大略」 「心經」 「朱子書節要」 「呂氏鄉約」 「士範」 「大學衍義」 「陶山言行錄」 「論思錄」 「朱子大全」 「朱子語類」 「朱子語類節要」 「二程全書」 「李子粹語」 「內範」 「荀子」	「心經」 「小學」 「近思錄」 「性理大全」
	類書類	-	-	「淵鑑類函」 「星湖僊說」	「四友叢說」
	道家類	-	「老子道德經」 「莊子」	「老子道德經」 「莊子」, 「陰符經」 「列子」, 「參同契」	「老子道德經」
	農家類	-	「穡經」	「農政全書」	-
	兵家類	-	-	「孫子」, 「司馬法」 「尉繚子」, 「武經」 「武備志」	「紀效新書」 「孫子」
	雜家類	-	-	「呂氏春秋」	-
	法家類	-	-	「韓非子」	「韓非子」
	術數類	「皇極經世書」 「洪範皇極內篇」	-	-	-
	譜錄類	-	-	「海族圖說」 「奇器圖」	-
	小說家類	-	-	-	「搜神記」 「歸田錄」 「山海經」
소계	24종(30.38%)	13종(34.22%)	34종(30.08%)	12종(38.71%)	

部	類	老論	少論	南人	北人
集部	楚辭類	-	-	「離騷」	-
	總集類	「唐宋八大家文抄」 「雪窖酬唱集」	-	「古文抄」, 「文選」 「唐音」, 「唐詩品彙」 「詩選」, 「八家百選」	「唐絕選刪」
	別集類	「懶齋集」, 「白江集」 「閒居錄」, 「海峯集」 「浦渚集」 「三節遺稿」 「思問錄」, 「栗谷集」 「澤堂集」, 「澤齋稿」 「息菴集」, 「村隱集」	「遲川集」 「忠烈公遺稿」	「西厓集」, 「昌黎集」 「白沙集」, 「梧里集」 「五峰集」, 「梧陰集」 「月汀集」, 「月沙集」 「漢陰集」, 「谿谷集」 「芝峰集」, 「鷺渚集」 「李忠武公全書」 「紫巖集」	「梅月堂集」
	소계	14종(17.72%)	2종(5.26%)	21종(18.59%)	2종(6.45%)
총계	총 79종	총 38종	총 113종	총 31종	

전체적으로 볼 때, 經部 서적은 모든 당과의 추천도서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남인의 추천도서에서 經部 서적의 비율이 子部 서적의 비율보다 낮지만, 추천 비율을 놓고 본다면 결코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다. 經部 서적은 黨色을 떠나 국가의 지배이념인 유학을 존송했던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필독도서였기 때문이다.

史部の 추천서적은 논문의 경우 13.92%이고, 소론, 남인, 북인 등은 대체로 약 20%대의 비율을 나타냈다. 논문의 추천도서가 다른 당과에 비해 史部の 비율이 낮은 것은 이들이 역사, 지리와 같은 주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유교경전과 성리학에 더 치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인들은 정서류의 서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子部 서적은 모든 당과에서 약 30%대의 높은 추천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남인과 북인은 子部の 서적을 가장 높은 비율로 추천했다. 子部の 경우 儒家類의 비중이 다른 유목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밖에 남인과 북인이 子部 儒家類 외에 道家類, 兵家類, 法家類 등의 서적을 다수 추천했던 것이 子部 서적이 높은 비율을 나타낸 원인으로 작용했다.

集部 서적은 논문을 제외하고는 전체추천도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여기 속하는 책들은 대부분이 개인문집으로 나타났으며, 남인을 제외하고는 대개 자신과 黨色을 같이 하는 인물의 문집을 추천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인이 다른 당파에 비해 다소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당파별 추천도서의 특징과 그것의 의미하는 바에 대해 고구해보았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은 기본적인 성리학적 소양 위에서 정치적 입장과 배경이 달랐던 만큼 관심 있게 공부했던 분야나 추천도서에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노론의 추천도서가 朱子書를 중심의 구성을 보였다면, 남인과 북인의 추천도서에는 道家, 兵家, 法家 등 다양한 諸子百家書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노론과 같이 서인에서 분리된 소론의 경우 노론과 거의 비슷한 구성을 보이면서 道家類, 農家類 서적이 포함된 정도의 차이만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학문의 범위가 성리서본 아니라 象數學이나 제가잡술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가치관은 조선후기 양반지배층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의 도학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었다. 산림에 은거하여 안빈낙도하는 생활을 하거나 혹은 관직에 나아갔을 때에도 철저히 민본, 위민의 정치 이념과 사림의 가치관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려 하였다.⁵⁹⁾ 이들이 黨色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도서가 유교경전과 性理書로 나타난 것은 결국 조선후기 양반지식인들이 지향하는 바는 유가적 가치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4. 추천도서의 평가

앞에서는 조선후기 당파별 추천도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당파별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당파별 추천도서를 경부, 사부, 자부 집부의 주제별로 살펴보고 당파 간의 특징을 통해 조선시대 당파별 추천도서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 인물 16명의 추천도서를 經部, 史部, 子部, 集部로 구분하여 각 부내에서 추천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해 보았다(<표 10> 참조).

59) 한국사상사연구회(1996), 142.

<표 10> 추천도서의 빈도순 목록

* 괄호 안 숫자는 추천빈도 수입

部	書名	老論				少論				南人				北人				
		宋時烈	宋浚吉	權尙夏	金昌協	尹拯	朴世堂	吳道一	鄭齊斗	尹鏞	李玄逸	安鼎福	丁若鏞	李山海	柳夢寅	許筠	鄭蘊	
經部	論語(12)	○	○	○	○	○		○	○		○	○	○				○	○
	孟子(12)	○	○	○	○	○		○	○		○	○	○				○	○
	大學(11)	○	○		○	○		○	○	○	○	○	○					○
	書經(11)	○			○	○	○	○	○	○	○	○	○		○			
	詩經(11)	○			○	○	○	○	○	○	○	○	○		○			
	中庸(11)	○	○		○	○		○	○	○	○	○	○					○
	春秋(10)	○		○	○		○	○		○	○	○	○		○			
	周易(9)	○			○		○	○		○	○	○	○		○			
	禮記(8)	○			○		○			○	○	○	○		○			
	孝經(5)	○	○							○		○	○					
	家禮(4)	○							○			○	○					
	大學或問(4)			○	○	○					○							
	儀禮(4)	○				○						○	○					
	春秋左氏傳(4)				○						○		○		○			
	家禮輯覽(3)	○		○		○												
	喪禮備要(3)	○		○							○							
	疑禮問解(3)	○	○	○														
	周禮(3)	○										○	○					
	大戴禮(2)	○										○						
	禮記記疑(2)	○		○														
	儀禮經傳通解(2)	○											○					
	儀禮通解續(1)	○																
	疑禮問解續(1)					○												
	家禮附贅(1)											○						
	家禮源流(1)			○														
	論孟精義(1)				○													
	論語或問(1)				○													
	大學章句(1)				○													
	尙書考辯(1)												○					
	喪威日錄(1)											○						
易學啓蒙(1)	○																	
類合(1)												○						
律呂新書(1)	○																	

조선 후기 당파별 추천도서에 관한 연구

部	書名	老論				少論				南人				北人			
		宋時烈	宋浚吉	權尙夏	金昌協	尹拯	朴世堂	吳道一	鄭齊斗	尹鏞	李文逸	安鼎福	丁若鏞	李山海	柳夢寅	許筠	鄭蘊
經部	爾雅(1)											○					
	字解(1)										○						
	中庸或問(1)			○													
	初學字訓增輯(1)	○															
	春秋穀梁傳(1)											○					
	春秋公羊傳(1)											○					
	孝經外傳(1)									○							
孝經外傳續篇(1)									○								
史部	史記(6)				○					○		○	○		○		○
	資治通鑑(5)		○							○	○	○	○			○	
	資治通鑑綱目(4)				○	○						○	○				
	漢書(4)				○					○		○		○			
	磻溪隨錄(3)										○	○	○				
	東國輿地勝覽(2)											○	○				
	宋名臣言行錄(2)	○						○									
	文獻通考(2)										○		○				
	史略(2)							○	○								
	戰國策(2)											○			○		
	通典(2)										○		○				
	高麗史(1)												○				
	國語(1)														○		
	國朝寶鑑(1)												○				
	南槎錄(1)	○															
	魯陵志(1)	○															
	論思錄(1)										○						
	大明律(1)												○				
	經國大典(1)												○				
	東國通鑑(1)															○	
	東國通鑑提綱(1)											○					
	東史綱目(1)											○					
模範錄(1)	○																
盤池漫錄(1)												○					
丙子江都日記(1)			○										○				
三國史記(1)												○					
盛京通志(1)											○						

部	書名	老論				少論				南人				北人			
		宋時烈	宋浚吉	權尙夏	金昌協	尹拯	朴世堂	吳道一	鄭齊斗	尹鏞	李文逸	安鼎福	丁若鏞	李山海	柳夢寅	許筠	鄭蘊
史部	宋史(1)								○								
	宋史詳節(1)						○										
	鵝洲雜錄(1)											○					
	述先錄(1)										○						
	濔源系譜記略(1)						○										
	麗史提綱(1)	○															
	麗史彙纂(1)									○							
	歷代便考(1)									○							
	燃藜室記述(1)												○				
	五賢傳(1)											○					
	臥游錄(1)						○										
	臨官政要(1)											○					
	旌忠錄(1)													○			
	帝王一統志(1)							○									
	祖鑑(1)								○								
	文獻備考(1)											○					
	懲愆錄(1)												○				
	清野謾輯(1)												○				
	通鑑節要(1)								○								
	皇輿考實(1)	○															
欽欽新書(1)												○					
子部	小學(12)	○	○		○			○	○	○	○	○	○		○	○	
	近思錄(10)	○	○	○	○	○		○		○	○	○				○	
	心經(8)	○	○	○	○			○			○	○				○	
	朱子書節要(6)	○	○		○	○					○	○					
	老子道德經(5)						○			○		○	○			○	
	聖學輯要(5)		○	○	○	○		○									
	朱子大全(4)	○		○	○							○					
	擊蒙要訣(3)	○		○		○											
	莊子(3)						○					○	○				
	朱門旨訣(3)	○			○	○											
	大學衍義(2)		○								○						
	孫子(2)									○						○	
	呂氏鄉約(2)										○	○					
	延平答問(2)		○		○												

조선 후기 당파별 추천도서에 관한 연구

部	書名	老論				少論				南人				北人			
		宋時烈	宋浚吉	權尙夏	金昌協	尹拯	朴世堂	吳道一	鄭齊斗	尹鏞	李文逸	安鼎福	丁若鏞	李山海	柳夢寅	許筠	鄭蘊
子部	二程全書(2)				○						○						
	朱子大全筭疑(2)	○		○													
	朱子語類(2)	○									○						
	韓非子(2)										○					○	
	經書辨疑(1)			○													
	困知記(1)				○												
	孔子家語(1)	○															
	歸田錄(1)															○	
	近思錄釋疑(1)			○													
	奇器圖(1)											○					
	紀效新書(1)												○				
	內範(1)											○					
	農政全書(1)												○				
	陶山言行錄(1)										○						
	武經(1)										○						
	武備志(1)												○				
	司馬法(1)										○						
	士範(1)											○					
	思辨錄(1)						○										
	四友叢說(1)															○	
	山海經(1)															○	
	穉經(1)						○										
	性理大全(1)																○
	聖學十圖(1)							○									
	星湖僊說(1)												○				
	搜神記(1)															○	
	荀子(1)											○					
	呂氏春秋(1)											○					
	淵鑑類函(1)											○					
	列子(1)											○					
	玉山講義(1)				○												
	尉繚子(1)										○						
	陰符經(1)											○					
李子粹語(1)											○						
程書分類(1)		○															

部	書名	老論				少論				南人				北人			
		宋時烈	宋浚吉	權尙夏	金昌協	尹拯	朴世堂	吳道一	鄭齊斗	尹鏞	李文逸	安鼎福	丁若鏞	李山海	柳夢寅	許筠	鄭蘊
子部	朱文酌海(1)		○														
	朱子封事奏筭疑(1)	○															
	朱子語類節要(1)										○						
	朱子遺書(1)				○												
	纂言大略(1)								○								
	參同契(1)										○						
	海族圖說(1)											○					
	洪範皇極內篇(1)	○															
皇極經世書(1)	○																
訓蒙大意(1)								○									
集部	西厓集(2)										○	○					
	澤堂集(2)	○			○												
	懶齋集(1)	○															
	白江集(1)	○															
	雪宮酬唱集(1)	○															
	閒居錄(1)	○															
	海峯集(1)	○															
	浦渚集(1)		○														
	三節遺稿(1)		○														
	思問錄(1)		○														
	栗谷集(1)			○													
	澤齋稿(1)				○												
	息菴集(1)				○												
	村隱集(1)				○												
	遲川集(1)					○											
	忠烈公遺稿(1)						○										
	昌黎集(1)										○						
	白沙集(1)											○					
	梧里集(1)											○					
	五峰集(1)											○					
	梧陰集(1)											○					
	月汀集(1)											○					
	月沙集(1)											○					
	漢陰集(1)											○					
	谿谷集(1)											○					

部	書名	老論				少論				南人				北人			
		宋時烈	宋浚吉	權尙夏	金昌協	尹拯	朴世堂	吳道一	鄭齊斗	尹鏞	李文逸	安鼎福	丁若鏞	李山海	柳夢寅	許筠	鄭蘊
集部	芝峰集(1)											○					
	鷺渚集(1)											○					
	李忠武公全書(1)											○					
	紫巖集(1)											○					
	梅月堂集(1)												○				
	離騷(1)											○					
	唐宋八大家文抄(1)				○												
	古文抄(1)											○					
	文選(1)											○					
	唐音(1)											○					
	唐詩品彙(1)											○					
	詩選(1)											○					
	八家百選(1)											○					
	唐絕選刪(1)															○	

4.1 당파별 추천도서의 주제별 평가

당파별 추천도서의 빈도순 목록을 살펴보면 黨色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당파의 추천도서에 四書五經과 「小學」, 「心經」, 「近思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대체로 經部와 子部 서적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각 당파의 추천도서 대부분이 經部의 유교경전과 子部의 儒家類인 것에서 기인한 결과다. 모든 당파의 추천도서에 포함된 四書五經과 「小學」, 「心經」, 「近思錄」은 당시 지배질서인 성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책들로 조선의 유학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따라서 당시 지식인들은 당파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책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추천빈도에 의거해서 경부, 사부, 자부, 집부로 구분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4.1.1 경부

經部の 서적으로는 유교의 기본 경전인 四書五經을 위시하여 「孝經」 등을 많이 추천하였다. 이 서적들은 당시 선비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책들이므로 당색에 관계없이 모두 당시 추천한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각 당파별로 미세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노론이 「論孟精義」, 「論語或問」, 「大學章句」, 「大學或問」 등과 같은 四書 중심으로 관련 서적을 추천한데 비해, 남인은 「大學或問」 1종을 제외하면 주로 「尙書考辯」, 「春秋左氏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孝經外傳」, 「孝經外傳續篇」과 같은 五經과 孝經을 중심으로 관련 서적을 추천한 것이다.

이처럼 노론계 학자들은 四書에 비중을 두고 있다. 원래 四書는 초기부터 현재와 같은 위상을 지니지는 못했다. 특히 「大學」, 「中庸」은 「禮記」의 편명이었으며, 「論語」, 「孟子」 역시 유가의 聖經으로서의 사상적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⁶⁰⁾ 그러나 宋代에 이르러 주자가 이 4종의 책을 주해하면서 四書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당시 주자를 존승했던 노론계 학자들은 四書を 정밀하게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해석서, 주석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같은 성향은 자부 유가류에서 노론들이 주자관련서적을 많이 추천한 것과도 연관이 깊다. 그러나 이에 반해 남인이 五經을 중시한 이유는 그들이 원시유학으로의 복귀 성향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남인들은 三代 이전을 이상적인 시대로 보고 그들의 개혁의 모델로 생각했던 것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4.1.2 사부

史部の 서적은 「史記」, 「資治通鑑」, 「資治通鑑綱目」, 「漢書」 등의 순서로 추천하였다. 「資治通鑑」, 「資治通鑑綱目」은 노론, 소론, 남인에게서 고루 나타났는데, 이는 조선후기 兩亂으로 인해 와해된 체제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회적

60) 전제성, “四書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陽明學』 16호(2006. 7), 336.

분위기와 맞물려 대명의리론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명의리론은 명이 멸망하고 북벌론이 퇴색하면서 관념적인 존주론의 형태로 강화되어 주자학의 계승 및 춘추대의가 강조되었다. 특히 尊王攘夷로 표현된 춘추대의는 정통론의 모습으로 역사서술에 반영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희의 『資治通鑑綱目』이 매우 중시되었다.⁶¹⁾ 전후 상황의 혼란을 성리학적 인륜질서를 중심으로 수습하고자 했던 조선 후기 사대부들은 『資治通鑑』이나 『資治通鑑綱目』 같은 역사서를 중요하게 여겨서 여러 당파에서 많이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三國史記』, 『東史綱目』, 『高麗史』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서의 추천도 눈에 띄는데 이는 당시 권력에서 소외된 남인들이 추천하고 있다. 이들은 노론과는 달리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성호 이익은 한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⁶²⁾ 安鼎福, 韓致齋 등 실제로 한국사를 연구하고 일대 저작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이현일, 안정복, 정약용 등 남인학자들이 조선의 국가운영과 개혁구상을 밝힌 유형원의 『磻溪隨錄』을 추천하고 있다. 이 책에는 노론이 주도하고 있는 조선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 당시 남인들은 개혁적인 국가체제를 모색하고 연구하였는데,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증거의 하나로 『磻溪隨錄』에 대한 관심이 컸었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당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벼슬과는 거리가 멀었고, 민생안정과 제도 개혁에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4.1.3 자부

子部の 서적은 『小學』, 『近思錄』, 『心經』, 『朱子書節要』 등의 빈도순으로 추

61) 허태용, “17세기 후반 正統論의 강화와 『資治通鑑節要』의 보급,” 『韓國史學史學報』 2호 (2000. 6), 5-6.

62) 李瀾, 『星湖先生全集』 卷25. 答安百順書.

今人生乎東邦 惟東事全不省覺 至曰東國通鑑有誰讀之 其乖戾如此 東國自東國 其規制體勢 自與中史有別.

천하였다. 특히 「小學」, 「近思錄」, 「心經」은 4당과의 추천도서에서 모두 나타났다. 이 책들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조선의 유학자의 필독도서로 여겨졌던 것들이기에 높은 추천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聖學輯要」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노론과 소론의 추천도서에서 나타났다. 노론 학자 권상하는 「心經」, 「近思錄」보다 먼저 읽어야 할 책으로 「聖學輯要」를 꼽고 있으며,⁶³⁾ 「聖學輯要」와 「擊蒙要訣」이 「小學」과 「大學」에 비교할 만한데, 주자 이후에 책을 지은 사람이 많지만 여기에 비길 만한 것은 없다⁶⁴⁾고 극찬한 것이다. 노론, 소론의 학문적 연원인 율곡선생의 대표저작 중 하나인 「聖學輯要」를 노론과 소론에서 중요한 서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老子道德經」이나 「莊子」 같은 서적은 성리학적 질서에 부합하는 서적은 아니나 소론인 박세당, 남인인 안정복, 정약용, 북인인 허균 등이 추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당시에 득세하지 못한 인물로 노론에 비해서 보다 자유로운 사고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허균 같은 경우에는 「山海經」, 「搜神記」 같이 당시 학자들이 읽기를 꺼리는 서적을 추천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노론학자인 홍석주의 경우 이 「山海經」과 「搜神記」 등의 서적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평가⁶⁵⁾를 내린 반면에 허균이 이러한 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교산이 그 당시 상당히 자유분방한 사고를 지녔음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孫子」, 「武經」, 「武備志」 같은 兵書는 추천 빈도는 낮지만 남인, 북인 학자들의 추천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병서를 추천했던 것은 학문이 주자학 일변도로 흐르지 않고 폭넓게 독서한 것과 관련 있다. 이들은 武가 그들의 학문이 지향하는 실천 중시와 이에 의거해 현실을 바로잡고자 했던 의지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나라의 국방이 전제될 때 한 나라의 자존을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민본의 정치, 위민의 정치가 가능한 것이라고 여겼던⁶⁶⁾ 것이다.

63) 權尙夏, 「寒水齋集」卷15. 答宋信甫 相允 戊子.

心近二書是四子之階梯 聖學輯要視二書尤喫緊 不可不先讀.

64) 權尙夏, 「寒水齋集」, 年譜.

曰擊蒙要訣聖學輯要 可比小學大學 朱子後作者雖多 未有可以擬此者.

65) 리상용(2006), 166.

66) 한국사상사연구회(1996), 183.

4.1.4 집부

集部에는 대체로 당시 대학자 또는 장군 등 유명 인사의 문집을 추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체 39종의 서적을 추천했는데, 『西厓集』과 『澤堂集』의 경우 2명이 추천했고, 나머지 서적은 모두 1명씩만 추천하였다. 『西厓集』은 남인인 안정복과 정약용이 추천했으며, 『澤堂集』은 노론인 송시열과 김창협이 추천하였다. 이 두 서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인들이 추천한 『西厓集』은 조선중기의 대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과 권율장군을 천거한 柳成龍의 문집이다. 유성룡은 이황의 문인으로 남인들이 신봉하는 학자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 『서애집』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이 소상하게 나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남인들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변란시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추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정약용이 『李忠武公全集』을 추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노론에서 추천한 『澤堂集』의 저자인 李植은 서인계 인물로서, 李廷龜, 申欽, 張維와 함께 한문사대가이자, 여한십대문장가에 속할 정도로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것이다. 이들의 문장은 주자학적인 사고 하에 당송팔대가의 고문을 표본으로 한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이었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이식의 문장은 우리나라에서 정통적인 고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어서 그의 문집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론과 소론은 자신의 당파에 속한 사람들의 문집을 위주로 추천했다. 이는 문집을 추천함에 있어 자신들과 당파 내에서 문장이나 학식이 뛰어난 인물을 선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인의 경우 그 사정이 다르다. 그들은 서인으로 임진왜란 때 국가의 난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 尹根壽의 『月汀集』, 尹斗壽의 『梧陰集』, 李恒福의 『白沙集』, 당시 한문사대가인 李廷龜의 『月沙集』과 張維의 『谿谷集』 등 서인계열의 문집을 5종이나 추천한 것이다. 이처럼 남인들은 자신의 당파에 속하지 않은 인물들의 문집이라도 당대 본받을 만한 뛰어난 인물이나 대 문장가인 경우 서슴없이 추천함으로써, 노론이나 소론

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과를 초월하여 도서를 추천하는 데 있어 객관성 내지 공정성을 기하려고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4.2 당과 간 추천도서의 평가

전체적으로 볼 때,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과 북인의 추천도서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 그 이유는 노론과 소론은 주 연원이 畿湖學派에 속해 있던 인물들이 많고, 남인과 북인 또한 嶺南學派에 속해 있던 인물들이 많아 그들의 학파의 연원이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당과 간 중복추천도서를 비교하여 그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노론과 소론의 중복추천도서는 각 당과에서 골고루 추천한 『小學』, 『心經』, 『近思錄』, 『資治通鑑綱目』 등과 같은 서적을 제외하면, 經部の 『家禮』, 『儀禮』, 『家禮輯覽』, 『大學或問』 등과 子部の 『聖學輯要』, 『擊蒙要訣』, 『朱門旨訣』 등이다. 이들 서적들은 모두 畿湖學派의 학문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畿湖學派는 栗谷과 成渾의 학통을 계승하였으며 주자를 깊이 존중했다.⁶⁷⁾ 이들은 四端七情論과 같은 성리설과 禮學에서 많은 학문적 성과를 남겼는데, 특히 예학 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보여주었다. 金長生은 예학의 연구와 저술에 전력하였으며, 그의 아들 金集은 부친의 뜻을 이어 예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두 부자의 문하에서 宋時烈, 宋浚吉, 尹宣舉, 李惟泰, 兪槩 등 많은 예학자가 배출되었다. 이들 외에 朴世采, 權謬, 尹拯 등도 예학에 정통하였다.⁶⁸⁾ 이들은 畿湖學派 문인들로 畿湖學派에서 예학 연구가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당시의 선비들이 예학에 대한 관심이 깊기는 했지만, 유독 노론과 소론의 중복추천도서에 『家禮』, 『儀禮』, 『家禮輯覽』과 같은 禮學書가 포함된 것은 예학 연구에 정통했던 이들의 학풍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67) 물론 嶺南學派가 주자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68) 황의동, “기호유학과 영남유학의 특성,” 『동서철학연구』 38집(2005. 12), 113.

이밖에 율곡의 「聖學輯要」, 「擊蒙要訣」 등의 서적은 그들의 학파와 연관이 있으며, 「朱門旨訣」, 「大學或問」 등의 서적을 함께 추천한 것은 주자를 존송했던畿湖學派의 학풍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남인과 북인의 중복추천도서는 四書五經과 「小學」, 「心經」, 「近思錄」 같은 필독서를 제외하면, 史部의 「戰國策」, 子部의 「孫子」, 「韓非子」로 살펴볼 수 있다.

남인의 중복추천도서에 子部 儒家類 이외의 諸子百家書가 포함된 점은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성리학 외 다른 사상을 보다 자유롭게 수용했던 그들의 학풍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史部에 「戰國策」을 추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춘추전국시대 때 치열하게 대립했던 제후국간의 각축을 가감 없이 담고 있으며, 책략가들의 권모술수를 보여준다 하여 당시에 많은 비난을 받았다. 남인과 북인의 중복추천도서에 「戰國策」이 올라온 점은 이들이 노론과 소론에 비해 사상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조선후기 당파의 형성과 정치적 특성과 학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각 당파에 속한 주요 인물들의 문집에 나타난 추천도서를 분석하여 평가를 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선후기 당파별 추천도서에 관해 고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학계와 철학계의 기존 연구문헌들을 참고하여 조선후기 당파의 형성 과정과 학문적 특성에 관해 알아보았다.

둘째, 각 당파의 領袖로 추대되거나 대표적인 문장가 또는 학자로 평가받는 인물 16명을 선정하고 그들의 문집을 조사하였다. 노론계 인물로는 송시열의 「宋子大全」, 송준길의 「同春堂集」, 권상하의 「寒水齋集」, 김창협외의 「農巖集」 등 4종,

소론계 인물로는 윤증의 『明齋遺稿』, 박세당의 『西溪集』, 오도일의 『西坡集』, 정계두의 『霞谷集』 등 4종, 남인계 인물로는 윤휴의 『白湖全書』, 이현일의 『葛菴集』, 안정복의 『順菴集』, 정약용의 『與猶堂全書』 등 4종, 북인계 인물로는 이산해의 『鵝溪遺稿』, 유몽인의 『於于集』, 허균의 『惺所覆瓿藁』, 정은의 『桐溪集』 등 4종, 전체 16종의 문집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각 당파의 대표적 인물로 선정한 16명의 문집 전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천도서에 관해 언급된 부분을 모두 추출하였다. 추천도서의 범주는 후학, 가족, 친지 등에게 읽으라고 권했거나, 임금의 국가운영에 도움이 된다거나, 進講 시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상소문을 올렸거나, 타인이 훌륭하다고 평가하거나 추천했던 책에 대해 동조했거나, 책의 序文이나 跋文에서 내용이나 문장이 훌륭하다고 칭찬한 책들을 위주로 하였다. 연구 대상 문집에서 이 기준에 따라 추출한 추천도서의 종수는 노론이 121종, 소론이 58종, 남인이 167종, 북인이 36종 등 총 382종이며, 이 중 당파별 중복도서를 제거한 종수는 노론이 79종, 소론이 38종, 남인이 113종, 북인이 31종 등 총 261종으로 나타났다.

넷째, 추천도서 분석을 위해 당파별 추천도서 가운데 중복도서를 제외한 261종의 서적을 四庫全書總目的 四部分類法에 따라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이 목록을 바탕으로 당파별 추천도서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당파별 추천도서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섯째, 당파 간 추천도서를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노론과 소론 간, 그리고 남인과 북인 간 추천도서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었다. 노론과 소론의 연원이 畿湖學派에 속해 있던 인물들이 많았고, 남인과 북인 또한 嶺南學派에 속해 있던 인물들이 많아 각각 학파의 연원이 같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론, 소론과 달리 남인, 북인의 중복추천도서에 유교경전, 역사서, 性理書 외에 道家書, 兵書 등이 포함된 것은 이들이 성리학 외에 다른 사상을 보다 자유롭게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당파별 추천도서는 원론적인 면에서 유교경전과 性理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후기 각 당파들의 정치적 입장 학문적

배경이 달랐던 만큼 그들의 추천도서에는 각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계, 철학계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온 조선후기 四色黨派에 대한 성향과 특성을 각 당파별 대표인물의 추천도서를 통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병수. “조선 후기 성호학파의 단군조선 인식.” 『仙道文化』 2집(2007. 2). 125-163.
- 강순애. 『고문헌의 조직과 정보활용』.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 강주진. 『이조당쟁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1.
- 권상하. 『국역한수재집』.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1.
- 권정원. “顧炎武의 『日知錄』과 조선후기 고증학.” 『한국실학연구』 15호(2008. 6). 7-31.
- 권진호. “溪村 李道顯의 讀書論과 古文論.” 『大東漢文學』 18호(2003. 6). 255-289.
- 기정순. “陶谷 李宜顯의 文章論 小考.” 『漢文學論集』 17집(1999. 1). 137-159.
-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관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9집(2004. 6). 189-225.
- 김상호. “晚翁 徐命瑞의 讀書段階論 比較研究.” 『圖書館學論集』 22호(1995. 1). 277-297.
- 김영주. “埴叟 鄭萬陽과 篋叟 鄭葵陽의 文學觀 一考.” 『퇴계학과 한국문화』 39집 (2006. 8). 235-268.
- 김오봉. “白水 楊應秀의 讀書論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5.
- 김왕규. “讀書 教育의 觀點에서 본 丁若鏞의 書簡文.” 『語文研究』 제29권 1호(2001. 3). 276-297.
- 김은경. “澤堂 李植의 讀書論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9.

- 김준석. “朝鮮後期 畿湖士林의 朱子 인식: 朱子文集 語錄 연구의 전개과정.” 『百濟研究』 18집(1987. 1). 99-119.
- 김진이. “영조 전반기 소론의 정책 구현과 정치 이념: 양역변통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 김창협. 『국역농암집』.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2.
- 김홍경. “朝鮮初期 官學派 儒學者의 異端意識.” 『儒教思想研究』 7집(1994. 1). 209-240.
- 남은경. “조선중기 독서경향과 『戰國策』.” 『大東漢文學』 26호(2007. 6). 347-374.
- 리상용. “淵泉의 讀書論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9집(1993. 12). 195-222.
- 리상용. 『역주 홍씨독서록』.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 민족문화추진회.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影印本.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 박세당. 『국역서계집』.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6.
- 박은정. “書堂 李德壽의 讀書論과 主意論의 글쓰기.” 『東方學』 11집(2005. 12). 65-83.
- 『四庫全書總目』. 臺北: 藝文印書館, 民國68[1979].
- 서경요. “조선조 후기 학술의 고증학적 성격.” 『儒教思想研究』 7집(1994. 1). 501-514.
- 송시열. 『국역송자대전』.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8.
- 송준길. 『국역동춘당집』.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7.
- 신병주. “17세기 전반 북인관료의 사상: 김신국, 남이공, 김세렴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집(1992. 12). 129-150.
- 신병주. “17세기 중·후반 近畿南人 학자의 학풍: 허목, 윤희, 유형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9집(1997. 6). 157-192.
- 신병주. 『조선 중·후기 지성사 연구』. 서울: 새문사, 2007.
- 심우준. “下學指南에 나타난 순암의 독서관.” 『한국학』 19집(1978). 18-33.
- 안병걸. “白湖 尹鏞의 經學과 社會政治觀.” 『동양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5호(1995. 4). 243-257.

- 안정복. 『국역순암집』.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6.
- 원재린. “朝鮮後期 星湖學派의 形成과 學風.”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 원재린. 『조선후기 星湖學派의 학풍연구』. 서울: 혜안, 2003.
- 유몽인 저. 이충구 감수. 『어우야담 1』.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1.
- 윤증. 『국역명재유고』.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6.
- 윤휴. 『국역백호전서』.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5.
- 이산해. 『국역아계유고』.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7.
- 이선아. “白潮 尹鑄의 修學 過程과 學問 世界.” 『전북사학』 23호(2000. 1). 93-123.
- 이성무.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1』. 서울: 동방미디어, 2000.
- 이은순. “朝鮮後期 政治思想과 黨論.” 『東洋學學術會議講演』 23호(1993). 3-18.
- 이태진. 『朝鮮儒敎社會史論』. 서울: 지식산업사, 1993.
- 이현일. 『국역갈암집』.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9.
- 정민. “沆瀣 洪吉周의 독서론과 문장론.” 『대동문화연구』 41호(2002. 12). 87-122.
- 정약용. 『국역다산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4.
- 정옥자. “17세기 사상계의 재편과 예론.” 『한국문화』 10집(1989. 1). 211-239.
- 정은. 『국역동계집』.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 정제두. 『국역하곡집』.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2.
- 정해양. “炯菴 李德懋와 楚亭 朴齊家の 讀書論 比較研究.”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정호훈. “朝鮮後期 北人의 學問 傳統과 政治 理念.” 『東方學志』 113호(2001. 9). 211-269.
- 조성산. “17세기 말~18세기 초 洛論系 文風의 形成과 朱子學의 義理論.” 『한국사상사학』 21호(2003. 12). 359-390.
- 조성산. “서평: 정호훈 저 『朝鮮後期 政治思想 研究(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 17세기 北人系 南人(북인계 남조성산.인)을 중심으로 -』(혜안, 2004).”

- 『한국사연구』 126호(2004. 9). 331-339.
- 진영호. “朱子讀書法研究.”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2.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DB.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DB.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 유학의 학파들』. 서울: 예문서원, 1996.
- 한형조. 『주희에서 정약용으로: 조선유학의 철학적 패러다임 연구』. 서울: 세계사, 1996.
- 해친오씨추탄공파중중. 『(國譯)西坡集』. 이민수 역. 서울: 海州吳氏楸灘公派宗中, 1993.
- 허균. 『국역성소부부고』.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 허태용. “17세기 후반 正統論의 강화와 『資治通鑑節要』의 보급.” 『韓國史學史學報』 2호(2000. 6). 5-6.
- 홍운령. “栗谷 李珥의 讀書論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 황의동. “牛溪 교육사상의 특성.” 『哲學論叢』 26호(2001. 10). 241-260.